

화이역어 페르시아어편 문헌분석의 중요성과 연구 방향성 고찰

| 광 새 라* · 강 은 지** |
Kwak, Sae-Ra · Kang, Eun-Ji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Persian volume of *Hua-yi-yi-yu* and its future research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ersian volume of *Hua-yi-yi-yu*, the "Chinese-Barbarian Dictionary" of the Bureau of Translators which was compiled during the Ming - Qing period and to present the importance of the research on this literature.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search on this issue. The previous researches on *Hua-yi-yi-yu* are mostly limited to historical studies and other languages such as Korean and Uighur, etc. Only a few research on Persian version is available but it was studied in a descriptive level. The further linguistic research on the Persian volume of *Hua-yi-yi-yu* is essential in that the analysis on the Persian language in the 15th century has not been studied much, which is the language of the Persian volume of *Hua-yi-yi-yu*.

[Key Words: *Hua-yi-yi-yu*; 15th century Persian; China; Iran; linguistic analysis; research direc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중국 명(明)-청(淸) 시기에 편찬된 일종의 외국어 어휘집인 화이역어(華夷譯語; *Hua-yi-yi-yu*; the "Chinese-Barbarian Dictionary" of the Bureau of Translators)의 페르시아어 어휘편, 즉 회회관역어(回回館譯語)를 소개하고 이 문헌 연구의 중요성, 특히 언어학적 분석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이역어는 명(明)-청(淸) 당시 외국 조공사들이 바치는 서한을 번역하는 번역자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전문 서적(실크로드 사전), 혹은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조정의 관리들이 외국 사절을 만나 접대하면서 나눌 화제와 소재의 목록(한재영과 뚜이엔 2016, 204)을 담은 어휘집이라고 여겨진다. 1382년 편찬된 갑종본(甲種本)인 몽골어편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朝鮮), 유구(琉球), 일본어(日本), 안남(安南), 외올아(畏兀兒), 섬라(暹羅), 회회(回回) 등 다양한 지역 언어에 대한 어휘집이 편찬되었다.

화이역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조선어 어휘집인 조선관역어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른 언어와 관련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근래에 Li(2011)에서 외올아 관역어, 즉 위구르어편의 어휘들이 연구되었으며, 한재영과 뚜이엔(2016)은 조선관역어와 안남관역어(베트남어)의 어휘 목록을 대조하고 그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화이역어에 대한 해외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역사적인 시각에서 화이역어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회회어, 즉 페르시아어편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회회는 중국에서 보통 서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하여 중국에 정착한 무슬림을 지칭한다. Liu(2008)에 따르면 명대의 회회족들 중 대다수의 모국어가 페르시아어였으며, 명대 회회관에서 편찬한 회회관역어는 페르시아어 어휘 대역집을 지칭한다. 화이역어의 페르시아어편인 회회관역어의 연구는 중국 및 우리나라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간의

오래된 역사와 중요한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외국어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회회관역어의 문헌학적 중요성과 이 문헌 연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또한 향후 문헌의 연구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화이역어 및 회회관역어의 문헌학적 특징

1. 화이역어 개관

화이역어는 중국 명(明)-청(淸)대에 간행된 것으로 사이관(四夷館)과 회동관(會同館)¹⁾에서 편찬한 여러 언어를 한어로 대역한 어휘집을 총칭한다(채영순 2007, 125). 화이역어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는 외교사절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학습을 위해 편찬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이역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갑종본(甲種本), 을종본(乙種本), 병종본(丙種本), 정종본(丁種本)인 네 가지 종본으로 분류한다(劉紅軍·孫伯君, 2008; 김호동, 1989; 한재영과 푸이엔 2016 등).

첫째, 갑종본은 사이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火源潔 등이 편찬 작업에 착수해 1382년부터 약 7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389년(洪武12年)에 간행된 몽골어 대역 어휘집을 가리킨다.

1) 원나라 때 국가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예부(禮部)에서 회동관(會同館)을 설치해 외국의 조공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도록 한 바 있다.明代에 이르러 그러한 조공 때 외국 사신의 언어와 문자 통역을 전문으로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사이관(四夷館)이 설치되었다. 1407년(永樂 5年)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에는 蒙古, 女直, 西番, 西天, 回回, 百夷, 高昌, 緬甸으로 8개에서 1511년과 1579년에 각각 八百館과 暹羅館이 증설된다(《明史》卷74 《職官志三》 참고). 사이관이 설치되고 1년 뒤에는 회동관이 설치되어 조공을 온 사신단의 접대 및 체류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644년(順治元年), 청대에는 사역관(四譯館)으로 개칭되었다가, 1748년(乾隆13年)에 회동관과 사역관이 합쳐져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이라 불렀다(劉紅軍·孫伯君, 2008).

둘째, 을중본은 사이관에서 편찬한 대역어휘(雜字)와 일부는 정부 공문의 대역 문장들(來文; 本田実信, 1963에서 文例로 설명함)이 실려 있다. 몽골어(鞑靼館譯語), 여진어(女直譯語), 티베트어(西番館譯語), 산스크리트어(西天館譯語), 페르시아어(回回館譯語), 좡어(주로 윈난(云南)성에 분포하는 중국소수민족의 하나, 百譯館譯語), 위구르어(高昌館雜字), 미얀마어(緬甸館譯語, 八百館譯語), 말레이시아어(暹羅館譯語)를 의미한다. 을중본의 특징은 중국어 음역과 의미가 원어와 함께 표기되었다는 것이다²⁾(Liu 2008, 39).

셋째, 병중본은 명대 후기 회동관에서 편찬된 역어자료를 가리킨다. 을중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선어, 류큐어, 일본어, 베트남어, 참파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페르시아어, 말라카어, 여진어, 백이어(滇緬소수민족어) 총 13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다³⁾. 병중본 대역어휘집에는 해당 외국어의 고유문자를 전혀 쓰지 않고, 음역 한자만 가지고 그 외국어음을 기록하였다.

끝으로 정중본은 청대에 회동사역관에서 편찬한 대역어휘집을 가리킨다. 36가지 언어 및 방언을 포함하며, 총 98권으로 이루어져있다(劉紅軍·孫伯君, 2008; 한재영과 뚜이옌 2016, 181).

화이역어는 중국어 어휘집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어휘집을 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천문, 지리, 계절, 인물, 인사, 신체 등의 주제별로 어휘를 정리하였다.

2. 회회관역어 개관

화이역어의 페르시아어편인 회회관역어는 을중본과 병중본 화이역어의 두 가지 종본이 있다. 앞서 소개한대로 을중본은 원어, 즉 페르시아어 표기와 함께

2) 각각 달단(鞑靼), 여직(女直), 서번(西番), 서천(西天), 회회(回回), 백이(百夷), 고창(高昌), 면전(緬甸), 팔백(八百), 섬라(暹羅)역관에서 편찬된 譯語를 의미한다.

3) 당시 조선(朝鮮), 류큐(琉球), 일본(日本), 베트남(安南), 점성(占城), 섬라(暹羅), 달단(鞑靼), 외올아(畏兀兒), 서번(西番), 회회(回回), 만자가(滿刺加), 여직(女直), 백이(百夷)의 역어를 의미한다.

중국어 음역과 의미가 표기되어 있고, 병종본에는 원어 표기는 생략되어 있다. 표1은 페르시아어가 포함되어 있는 을종본과 병종본의 종류와 소장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화이역어의 구성에서 잡자(雜字)는 어휘를, 래문(來文)은 문장형태의 예시들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1은 현존하는 화이역어 이본들을 정리하고 그 소장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1_ 화이역어의 종류와 소장위치

종본	종류(판본/필사본)	구성(잡자/래문)	소장위치
을종본	청초 간본	雜字	북경도서관 善本部
	청초 同文堂 사본	雜字	북경도서관 善本部
	사본	雜字, 來文	독일 베를린 국가도서관
	명대 사본	雜字, 來文	이란 국립도서관
	명대 사본	雜字, 來文	日本東洋文庫
	청대 사본	雜字, 來文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사본	雜字	영국 옥스퍼드대학
	청康熙년대 사본	雜字	프랑스 파리 아시아협회
	명대 간본	雜字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청대 사본	來文	일본 内閣文庫(현国立公文書館)
	사본	雜字	이탈리아 《回回館譯語》 연구자 GiuseppeRos 개인 소장
병종	사본	雜字	중국 北京도서관 善本部
	명대 사본	雜字	영국 런던대학 SOAS 도서관
	사본	雜字	일본 아와문고본
	사본	雜字	靜嘉堂文库本
	사본	雜字	베트남 하노이 (원래 프랑스 EFEO도서관 소장본)
	사본	雜字	일본학자 稻叶박사가 소장

3. 회회관역어의 구성

본고에서는 을중본과 병중본 회회관역어 중에서 을중본으로서 중국북경도서관 소장되어 있는 간본 및 하버드 대학 Donald Sturgeon박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Chinese Text Project(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ctext.org>)을 함께 참고하여 그 구성을 살펴보았다.

을중본의 페르시아어편은 한 면당 총 4개의 어휘를 담고 있다. 하나의 어휘는 총 세 줄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윗줄에 페르시아어 어휘가, 두 번째 줄은 그에 해당하는 의미를 중국어로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줄에는 중국어로 음역한 페르시아어 발음이 제시되어 있다. 을중본의 雜字는 파리 국립도서관본, 동양문고본, 파리 아시아협회본과 북경도서관본에서는 모두 777개 항목이며, 나머지 다른 을중본에서도 소실된 글자들과 속편으로 증보된 어휘 233개 항목을 추가하면 모두 1010개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다⁴⁾.

표2_을중본 회회관역어 어휘목록 구성

주제	의미	어휘수	추가 어휘수
천문(天文)	천문	40	7
지리(地理)	지리	56	14
시금(時令)	계절	41	7
인물(人物)	사람	65	8
인사(人事)	인사	98	10
신체(身體)	신체	50	9
궁실(宮室)	집	25	6
조수(鳥獸)	동물	49	12
화목(花木)	식물	42	11
기용(器用)	도구	50	11
의복(衣服)	의복	26	9
음식(飲食)	음식	33	6
진실(珍寶)	보석	18	10
성색(聲色)	소리와 색	17	0

4) 문헌학적인 분석은 本田實信(1963), 胡振華(1995)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문사(文史)	문학과 역사	17	0
방우(方隅)	방향	24	0
수목(數目)	수	18	12
통용(通用)	일반	108	101

III. 기존 화이역어 연구의 한계

기존의 화이역어 연구들은 주로 페르시아어를 제외한 조선어, 몽골어, 베트남어, 위구르어 등의 제한적인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權仁瀚, 1998; 김호동, 1989; Li, 2011; 越智サユリ, 2004; 庄垣内正弘, 1984 등). 한편 회회관역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외에서는 주로 문화 교류 등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헌을 연구하는 데 머물렀다는 아쉬움이 있다(王东平, 2009; 胡振华, 1995; 本田実信, 1963 등).

중국에서는 과거 대외무역이 성행하던 시기 중동에서 이주해 정착한 후손들을 후이족(回族)으로 부른다. 이러한 후이족 소수민족 자치구가 중국 닝샤(宁夏)에 있으며 닝샤에 위치한 사회과학원에서는 『회족연구(回族研究)』라는 잡지를 계간(季刊)으로 간행하고 있다. 주로 중국의 후이족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때문에 과거 문헌에 출현하는 후이족의 흔적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周传慧(2015) 등에서는 과거 청실록을 통해 회회국(回回國)에 대한 인식을 다룬 바 있으며, 聂大昕(2016)는 화이역어를 포함한 과거 문헌들을 통해 회회(回回)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또한 王东平(2009)은 화이역어를 중국과 외국의 문화교류사 연구의 성과로 판단하며 元明시대 한어의 외래어 어휘의 기원을 밝히거나 페르시아어학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역사사료를 통한 당시의 문화 교류 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화이역어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그 중 회회역어와 관련된 논문은 田坂興道(1943, 1951)과 本田



実信(1963), 繩田鉄男(1976)가 유일하다. 이들은 모두 역사학자로서 繩田鉄男(1976)는 페르시아어 표기가 없는 판본을 대상으로 한 문헌학적 연구이며, 田坂興道(1943, 1951)은 천문문에 수록되어있는 49개의 어휘만을 정리한 것이고, 本田実信(1963)에는 이를 토대로 각각에 해당하는 한자와 그 음역한자, 그리고 추정되는 페르시아어 문자를 로마자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 것에 그쳤다.

Liu(2008)는 13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중국 왕실의 지원을 받은 페르시아어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화이역어 편찬 배경 및 당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페르시아어편에 340년 역사의 중국 내 페르시아어 교육기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두 가지 판본의 화이역어 페르시아어편에 수록된 주제별 어휘의 종류와 수를 구분하였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서면의 구성 등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단순히 문헌학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의 화이역어 연구 가운데 조선관역어를 제외한 타 언어의 대표적인 연구로 Li(2011)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 화이역어의 위구르어편 중 지리 범주의 어휘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Li(2011)은 이 판본의 필기상, 문법상 오류를 지적하고, 위구르어편 필사자 혹은 편집자의 중국어 및 위구르어에 대한 구사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한다.

한재영과 뚜이옌(2016)은 화이역어의 두 가지 언어, 조선어편과 안남어, 즉 베트남어편을 비교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 어휘집에서의 어휘 목록을 비교하여 목록의 차이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였으며, 어휘의 목록이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한 어휘집으로서는 부족하며, 오히려 외국 사절을 만나 접대하면서 나눌 화제와 소재의 목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목록을 통해 명나라 시대의 교양의 폭과 깊이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화이역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페르시아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페르시아어의 경우 주로 역사학이나 문화교류적 측면이 관심의 대상으로서 연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IV. 회회관역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중요성

화이역어 중에서도 페르시아어편의 연구는 중국 및 우리나라와 페르시아(현재의 이란)간의 오래된 역사와 중요한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외국어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원전 200년 경에 이미 중국 한나라 외교관이었던 장건(張騫)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중국 왕실에 제공했으며,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국가였던 중국과 페르시아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명나라 때 페르시아어가 중국인들이 서아시아인들과 소통할 때 사용하던 링구아 프랑카의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Liu 2008, 35 참고). 당시의 중국과 페르시아와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화이역어에서의 페르시아어편, 즉 회회관역어의 편찬이 당시 중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화이역어의 페르시아어편 연구는 국내적으로도 중요하게 고찰되어야 할 연구주제이다. 차용이 신라 왕실에서 일했던 서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고려 및 조선시대에서 서역인들이 크고 작은 관직에 종사했고, 일반 상인으로 정착하기도 했다는 역사적 자료들이 페르시아인 혹은 아랍인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정착했을 것은 자명하다. 또한, 최근 국내에 소개된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쉬나메에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중국 왕의 주선으로 신라에 오게 되고, 신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페르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오래된 연결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페르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간 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한편, 언어학적 관점에서 화이역어의 회회관역어편은 15세기 페르시아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언급한 바와 같이 本田美信(1963)에는 회화관역어 각각의 어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와 그 음역한자, 그리고 페르시아어 문자를 로마자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학적인 측면과 목록화된 어휘자료를 참고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는 당시 문헌 속 어휘들을 피상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임에 불과하다. 즉, 페르시아어의 변화나 당시 한자의 음을 재구하는 작업 등 언어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페르시아어는 고대, 중세 페르시아어를 거쳐 현대 페르시아어까지 역사적 변천을 거친 언어이다. 현재 사용되는 페르시아어는 신 페르시아어(New Persian)⁵⁾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데, 신 페르시아어는 아랍이슬람 정복 이후의 아랍어 철자를 받아들인 이후의 언어로서 약 1000년 이상의 시기를 포함한다. 신 페르시아어는 다시 초기 신 페르시아어, 고전 페르시아어를 거쳐 현대 페르시아어로 분류되는데, 화이역어 편찬이 시작된 15세기는 페르시아어의 역사로 볼 때 고전 페르시아어의 시기이다. 대부분의 페르시아어 역사언어학 연구는 고대페르시아어, 중세페르시아어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신 페르시아어의 범주 중에서 초기 신 페르시아어나 고전 페르시아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페르시아어를 소개하는 문헌들에서 신 페르시아어는 약간의 음운적, 형태적 변화만을 겪었을 뿐, 현대 페르시아어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피상적이고 간략한 서술 형태의 소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 즉 이란이 겪은 역사적 변화를 주지한다면 언어의 변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페르시아 내부의 변화는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투르크, 몽골 등의 침략을 받으면서 투르크어, 몽골어 등과의 언어접촉을 통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5세기는 페르시아가 티무르 왕조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이므로, 이 왕조의 언어가 속한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와

5) 페르시아어를 시대별로 고대, 중세, 현대 페르시아어의 세 범주로 나누기도 하지만, 최근 언어학 연구에서는 8세기 이후의 페르시아어를 신 페르시아어의 범주에 넣고, 신 페르시아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르시아어의 접촉을 통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어의 역사 중 1000년 이상의 기간을 일컫는 신 페르시아어의 초, 중반기인 초기 신 페르시아어나 고전 페르시아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Pisowicz(1985)가 15세기 페르시아어 음가를 재구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는 당시 자료를 통한 정확한 재구가 아닌, 13세기 페르시아어 음운체계와 20세기 음운 체계를 비교하여 가늠한 자료일 뿐으로, 15세기의 페르시아어 음운체계를 정확히 재구했다고 볼 수 없다. 페르시아의 역사적 변화에 따른 언어 접변 현상, 즉 다른 언어의 간섭 현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회관역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페르시아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회회관역어의 기초 분석에서 철자법, 어휘, 음운적 특성 등이 현대의 페르시아어와 대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철자를 적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는데, 예시 1-3은 화이역어(왼쪽)와 현대 페르시아어(오른쪽)에서 철자 *kāf*의 형태를 대조한 것이다. 페르시아어 철자가 어휘의 처음, 중간, 마지막에 위치할 때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을 감안하여 예시 1에는 이 철자가 어휘 처음에 오는 경우, 예시 2에는 중간에 오는 경우, 예시 3에는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예를 제시하였다. *kāf*가 처음형으로 쓰인 예시 1은 페르시아어 알파벳 '*kāf - vāv - he*'가 연결된 어휘로 발음은 /*kuh*/이며 '산'의 의미를 갖는다. *kāf*가 중간형으로 제시된 예시 2는 '*lām - shin - kāf - re*'가 연결된 어휘로 '군대'의 의미이고, /*lashkar*/로 발음된다. 예시 3은 *kāf*가 어휘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어휘로 '*pe - shin - kāf*'가 연결되어 /*pashak*/의 음가를 내는 '이슬'이라는 의미의 어휘이다. 당시 페르시아어의 *kāf*에 대한 표기와 현대 페르시아어에서의 표기를 다양하게 비교해보기 위해 현대 페르시아어 예시의 경우 현재 이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쇄체- B Badr, Times New Roman, Iran Nastaliq-를 모두 제시하였다. 두 시기의 철자 *kāf*의 형태를 비교한 바, 이 철자가 오는 위치와 관계없이 15세기의 *kāf*는 현대 페르시아어보다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로 표기되며, 우측 하단의 Iran Nastaliq 서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페르시아어 *kāf*의 상단 부분이 하단



부분과는 다른 획으로 쓰인 것과 달리, 15세기 페르시아어의 kaf는 이 철자를 획을 끊지 않고, 한 획에 쓴 것처럼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예시 1>

حوه

کوہ

山

کوہ

黑 料

کوہ

<예시 2>

پشک

پش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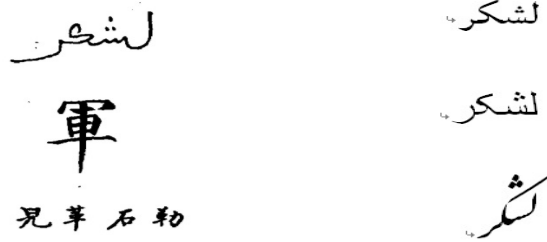
霜

پشک

克 石 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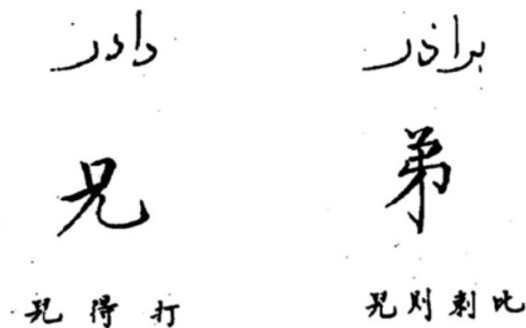
پشک

〈예시 3〉



뿐만 아니라, 화이역어의 회회관역어에서는 현대 페르시아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어휘의 생성과 소멸, 혹은 변화에 대한 흐름과 그를 통한 당시의 사회상까지 추정해볼 수 있다. 일례로, 예시 4에서는 ‘형과 아우’에 해당하는 당시 페르시아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 페르시아어에서 ‘형’에 대응하는 어휘는 부재하며, 화이역어에 제시된 ‘아우’의 어휘가 형과 아우를 모두 총칭하는 영어의 'brother'에 해당하는 어휘로 사용된다. 즉, 15세기 페르시아어의 ‘형’의 어휘는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물론 더 많은 어휘들의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겠지만, 과거 페르시아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위계질서가 좀 더 엄격하게 지켜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시 4〉





V. 나가며 - 회회관역어의 연구 방향성 제시

화이역어의 페르시아어편인 회회관역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역사적 관점에서 수행된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 중에서는 어휘 자체에 대해 다른 本田實信(1963)가 유일하다. 1010개의 한자 어휘 목록(어휘와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을 입력하였고, 페르시아어 문자로 적혀 있는 페르시아어 어휘를 로마자 표기로 바꾸어 적고 해당 어휘의 의미를 영문으로 기록하였다. 다만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음역한자와 페르시아어의 로마자 표기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자음 문자인 페르시아어 문자의 특성상 모음 부호는 저자의 추정이며, 본격적인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이에 향후 화이역어의 회회관역어 연구는 언어학적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15세기 페르시아어 언어체계를 정확히 재구한 연구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역사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어의 역사적 발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회회관역어는 바로 15세기 페르시아어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헌학적 중요성을 가진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회회관역어에 나타난 언어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철자법 및 음성-음운론적인 측면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회회관역어의 어휘들과 현대 페르시아어의 비교를 통해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철자의 변형, 음가의 변화, 음운의 변화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의미 변형이 있는 어휘, 혹은 현대 페르시아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소멸된 어휘 등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 회회관역어가 15세기 한자음으로 기록된 문헌임을 고려할 때 당시 중국 한자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중국의 음운사에서 15세기는 근대음으로의 변화가 있던 시기로 음운변화에 대해 주의하여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董同龢(1968) 등의 학자는 중국어 음운사를 상고음, 중고음, 근고음, 근대음, 현대음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운서를 기준으로

중고음은 절운(切韻)을, 근고음은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1297)를, 근대음은 중원음운(中原音韻)(1324)을 기준으로 하는 음운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근대음은 관화(官話)라고도 한다. Norman(1988)은 송대에서 명대 초기까지의 한어를 고(古)관화, 명대와 청대 초기 자료에 반영된 중국어를 중기 관화, 19세기 이후의 중국어를 현대 관화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중기 관화의 음계라 할 수 있다. 가령, 운략이통(韻略易通)(1442) 등과 같이 화이역어와 유사한 시기에 출판된 당시 한자음의 소리를 정리한 운서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그 음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다른 표음문자로 기록된 문헌이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의 더욱 정확한 음가를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최세진이 조선 역관들의 중국어 학습서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와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1517년 이전) 등과 같은 문서의 한글 표기를 참고가 필요하다. 이는 15~16세기의 실제 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운서를 참고하기 위한 각 글자의 반절(反切)⁶⁾과 寧繼福(1985)등의 재구형을 수집함과 동시에 번역노걸대, 박통사에 기록되어 있는 좌측음과 우측음을 동시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교육된 15세기의 페르시아어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의 발굴은 당시 페르시아어와 중국, 그리고 한국 간 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화이역어, 15세기 페르시아어, 중국, 이란, 언어학적 분석, 연구 방향]

6) 반절이란 표의문자인 한자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두 글자로 한 글자의 음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즉 성모(initial consonant)에 해당하는 반절상자(反切上字)와 음모(final)에 해당하는 반절하자(反切下字)로 표음의 대상, 즉 피절자(被切字)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가령 東은 운서에 德紅切로 적혀있는데 이는 반절상자인 德에서 ㄷ를 紅에서 -uŋ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글자료

- 權仁瀚 (1998). 『朝鮮館譯語의 音韻論的 研究』(國語學叢書 29). 태학사.
- 김호동 (1989). “화이역어 (華夷譯語) 의 납문부마서에 (納門駙馬書) 대한 재해석 - 14세기 후반 모굴 한국사 (汗國史) 해명의 일자료 -”, 『알타이학보』 1, 15-34.
- 蔡瑛純 (2007). “화이역어의 조선관역어에 나타난 漢語 譯音의 限界性 研究”, 『中語中文學』 41, 125-150.
- 한재영, 응우옌 응옥 뚜이엔 (2016). “화이역어를 통하여 본 명대인(明代人)의 교양”, 『교양학 연구』 3, 177-209.

영문자료

- Li, Yong-Song (2011). “The Uighur Word Materials in a Manuscript of Hua-yi-yi-yu in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알타이학보』 21, 121-138.
- Liu, yinsheng(2008), “Government sponsored Persian Education in China between 13th and 18th centuries.”, *Language and Linguistics* 35-55.
- Norman, Jerry (1988).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sowicz, Andrzej (1985). *Origins of the New and Middle Persian Phonological system*, Nakladem Uniwersytetu Jagiellonskiego.

중문자료

- 董同龢(1968).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 胡振华(1995). “珍贵的回族文献<回回馆译语>”, 『中央民族大学学报』 2, 87-91.
- 刘迎胜(2008). 『<回回馆雜字>与<回回馆译语>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聂大昕(2016). “近代辞书中的“回回”译名考”, 『回族研究』 2,13-19.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 王东平(2009). “回族史与中外文化交流史研究的新成果——<回回館雜字>与<回回館譯語>研究评介”, 『回族研究』 2, 177-180.
- 周传慧(2015). “青初<清实录>中的回回国”, 『回族研究』 4, 59-62.

일문자료

- 越智サユリ(2004). “華夷譯語丙種本『韃靼譯語』におけるモンゴル語について”, 『京都大学言語学研究』 23, 115-144.
- 庄垣内正弘(1984). “『畏兀兒館訳語』の研究-明代ウイグル口語の再構(内陸アジア言語の研究第1号)”, 『神戸市外国語大学外国学研究』 14, 51-172.
- 田坂興道(1943). “回回館譯語釋(一), (二), (三完)”, 『東洋學報』 30(1, 96-131; 2, 232-296; 4, 534-560).
- 田坂興道(1951). “回回館譯語釋補正”, 『東洋學報』 33(3), 400-413.
- 本田実信(1963). “<回回館訳語>に就いて”,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1, 1-73.
- 繩田鉄男(1976). “所謂丙種本華夷譯語-ロンドン本回回譯語について”, 『法文論叢』 37, 74-104.

논문접수일: 2018년 0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8년 02월 05일

게재확정일: 2018년 02월 09일

